

2023
감사원 특강

고등교육재정지원정책의 이해

변천과정, 현황과 쟁점, 향후 개선방향

2023.05.04(수) 10:00-12:00



남 수 경

강원대학교 교육재정중점연구소장
교육학과 교수

목차

01

고등교육 현황

02

고등교육재정 현황

03

대학재정지원사업 변천

04

2023년 주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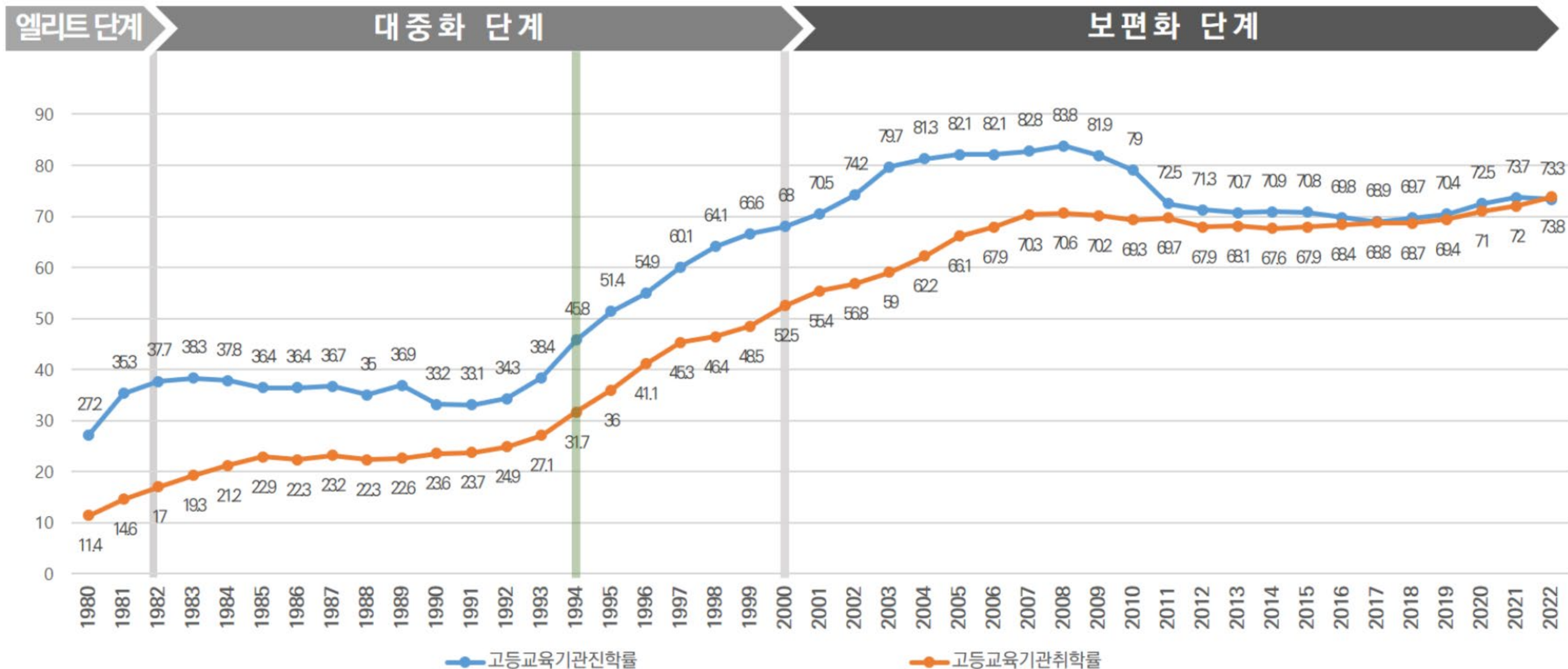
05

쟁점과 개선방향

01 고등교육 현황

Trow(1973)의 고등교육 발전단계(3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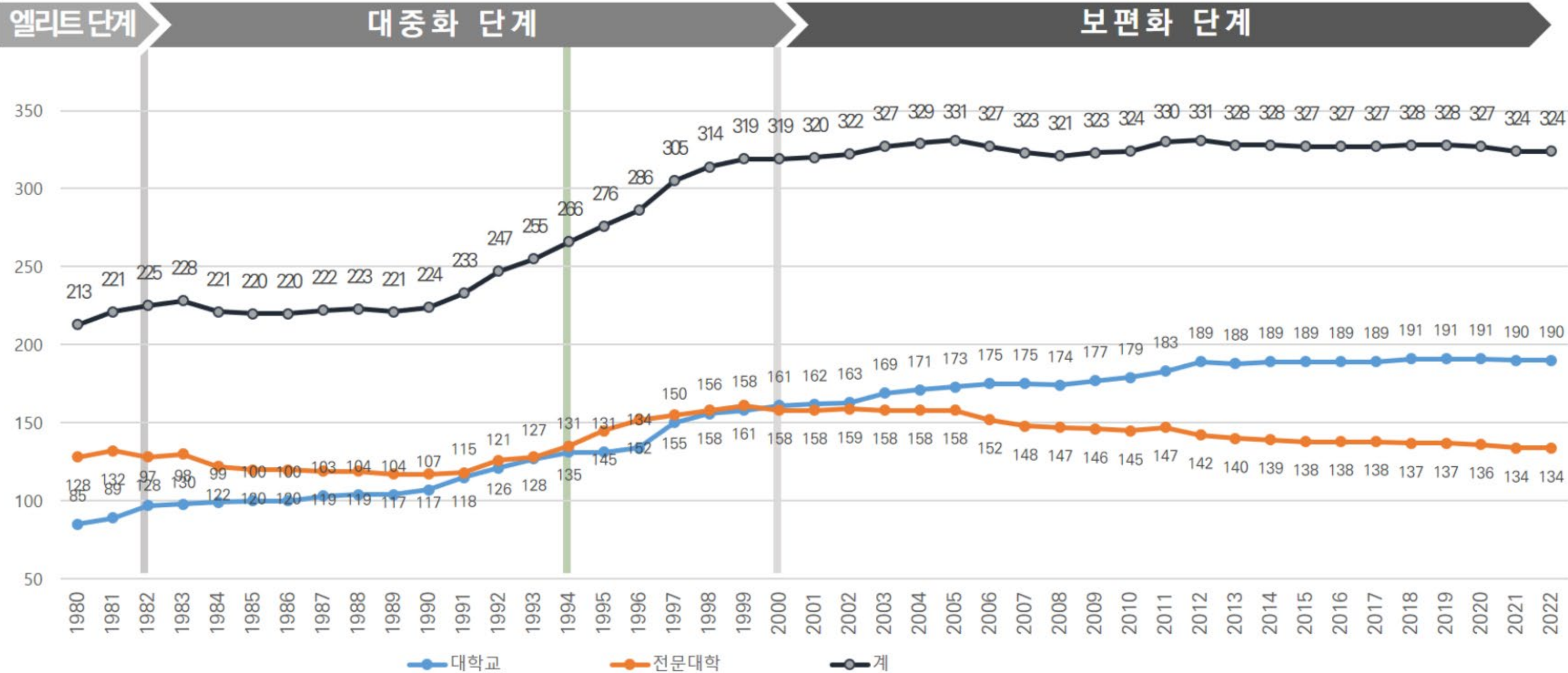
▲ 대학 취학률 15% 미만인 '엘리트 단계' ▲ 15% 이상 - 50% 미만인 '대중화 단계' ▲ 50% 이상인 '보편화 단계'



• 진학률 : 전체 졸업자 중 상급교육기관으로의 진학자 비율

• 취학률 : 취학적령 인구 가운데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비율 = (해당연령에 속하는 재적학생수/취학적령 인구) × 100 / (취학적령인구) 고등교육기관 (만18~21세)

우리나라 대학과 전문대학 학교수 추이 (단위: 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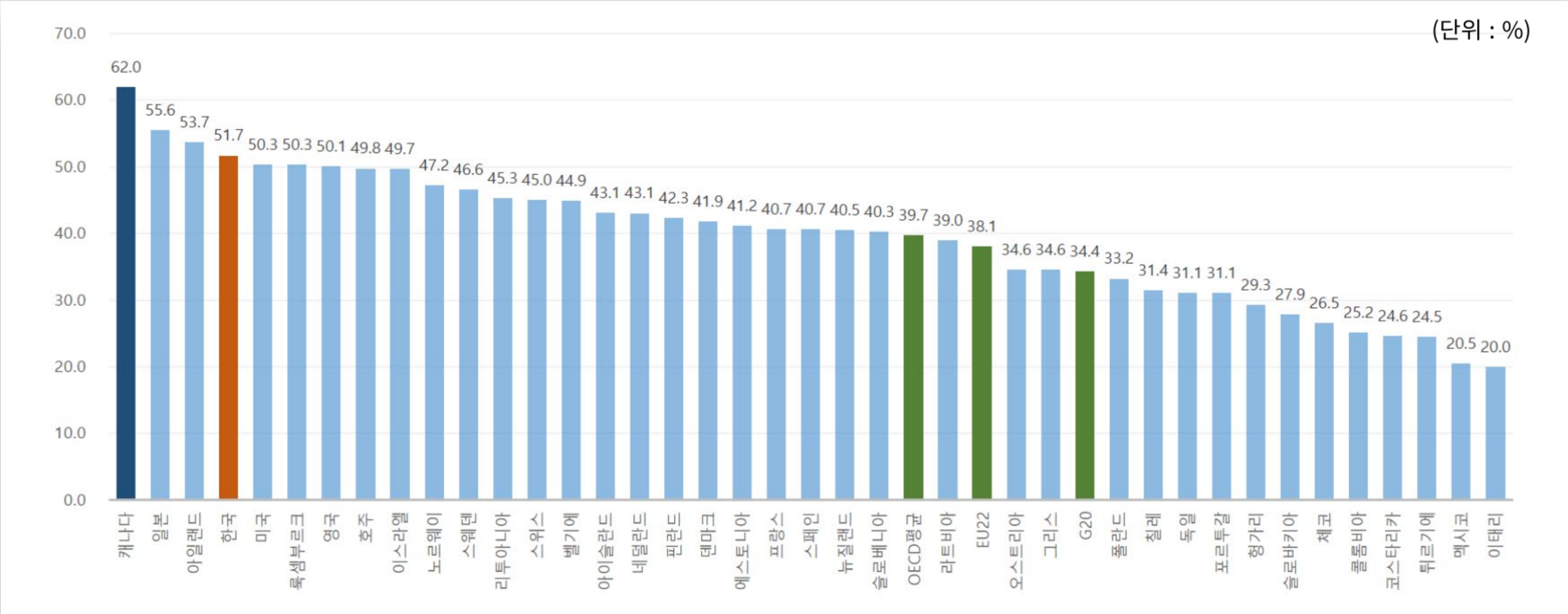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OECD 국가의 고등교육이수율 : 24-64세 인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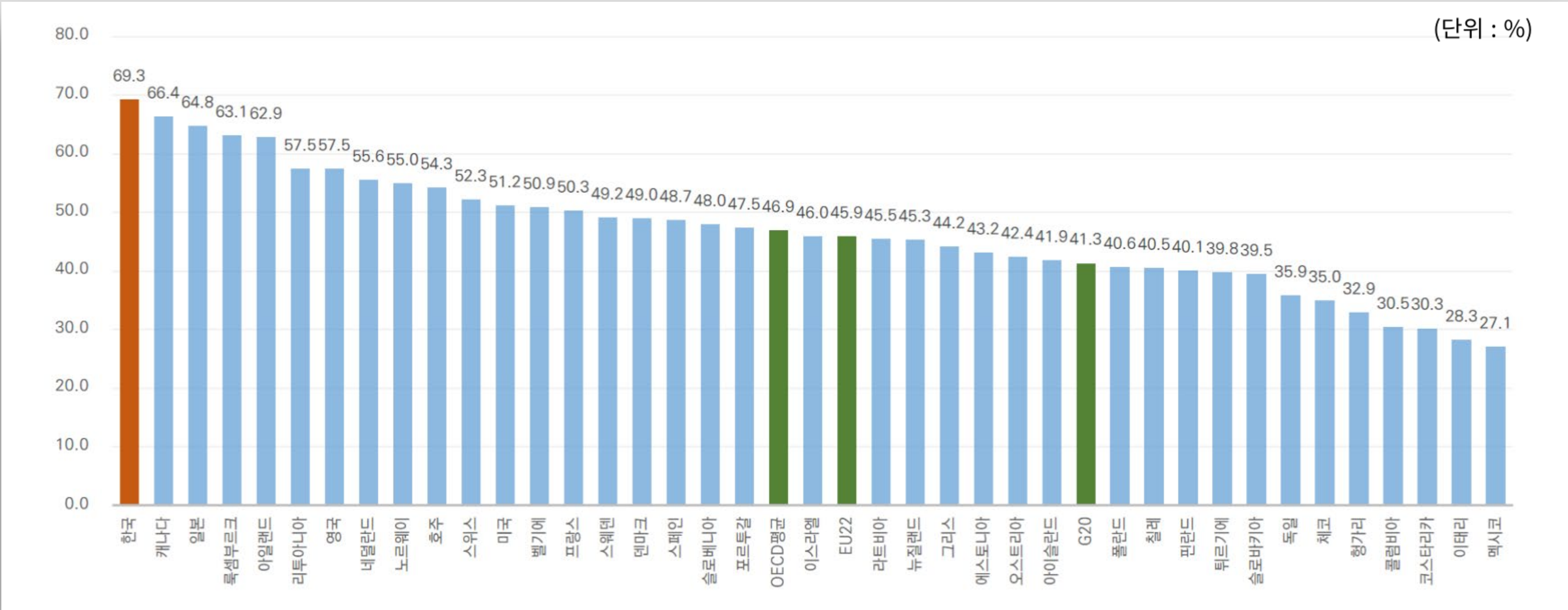
- ▶ EAG 2022 (2021년 기준) - 우리나라 25-64세 인구 대학이수율은 51.7%로 OECD 국가 가운데 4번째
- 캐나다(62.0%), 일본(55.6%), 아일랜드(53.7%) 다음으로 높은 순위



OECD 국가의 고등교육이수율 : 24-34세 인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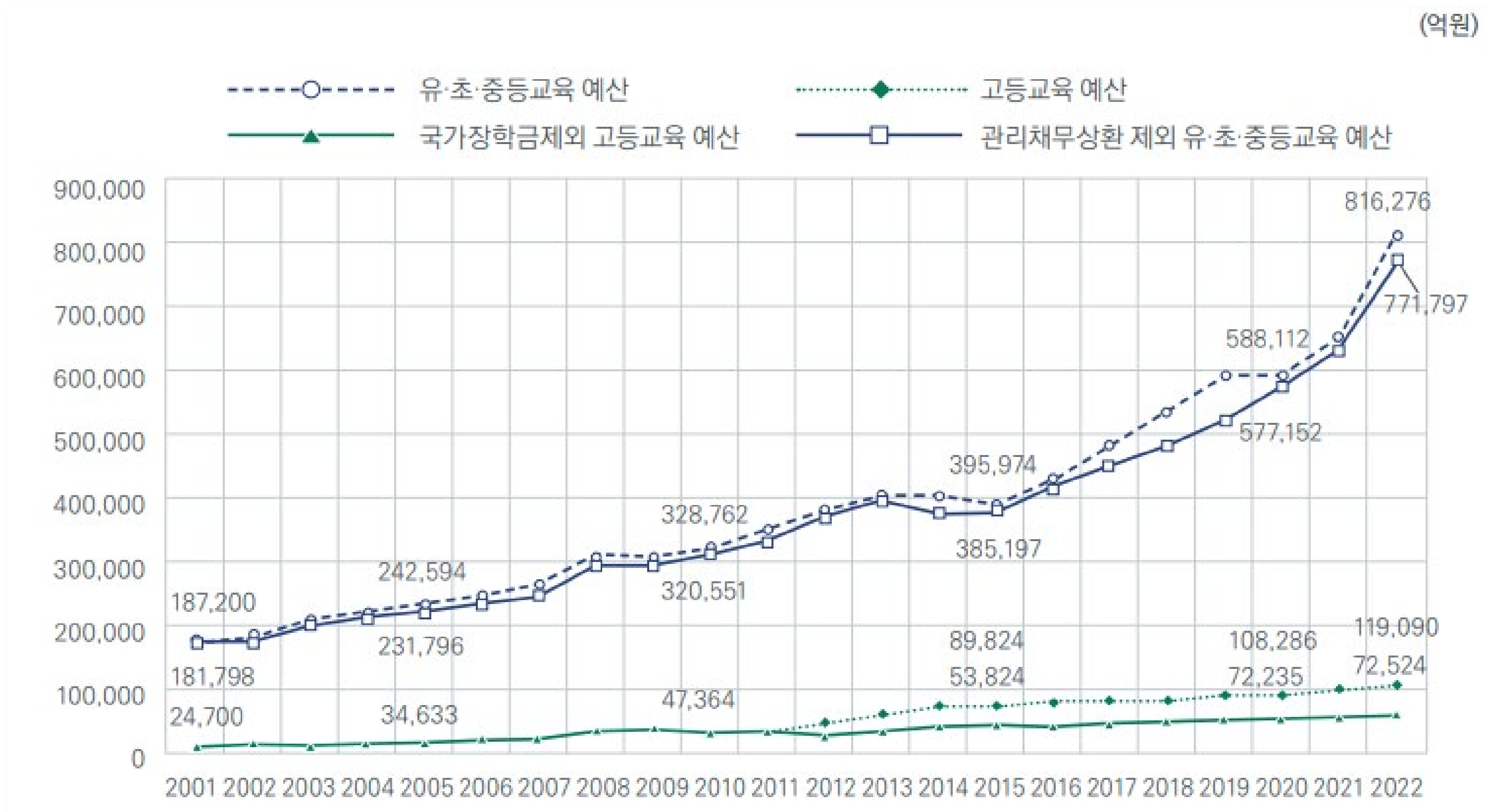


- ▶ EAG 2022 (2021년 기준) - 우리나라 25-34세 인구 대학이수율은 69.3%로 OECD 국가 가운데 1위
 - OECD 국가 평균(46.9%), EU22(45.9%), G20(41.3%)



02 고등교육재정 현황

1 국가 유·초·중등교육예산과 고등교육예산의 추이 (2001-2022년)



(송기창, 2022: 37)

정부 재정투자 실태: 학자금 및 사업비 위주의 지원

- ▶ 고등교육예산 규모 꾸준히 확대. 그러나 실질고등교육예산은 지속적 하향 및 정체 상태

(단위 : 조원, 억원, %)

구분	GDP	정부 예산	교육 예산						[실질고등교육예산비율]		
				소계 [A]	국가장학금		실질고등교육예산		GDP 대비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 대비
					[B]	[B/A*100]	[C= A-B]	[C/A *100]			
2010	1,322.6	292.8	382,557	50,440	3,566	7.1	46,874	92.9	0.4(0.4)	1.7(1.6)	13.2(12.3)
2011	1,388.9	309.1	412,360	49,769	5,218	10.5	44,551	89.5	0.4(0.3)	1.6(1.4)	12.1(10.8)
2012	1,440.1	325.4	454,911	62,208	19,240	30.9	42,968	69.1	0.4(0.3)	1.9(1.3)	13.7(9.4)
2013	1,500.8	342.0	497,712	76,807	27,750	36.1	49,057	63.9	0.5(0.3)	2.2(1.4)	15.4(9.9)
2014	1,562.9	355.8	506,996	88,705	36,753	41.4	51,952	58.6	0.6(0.3)	2.5(1.4)	17.5(10.2)
2015	1,658.0	375.4	529,187	91,989	38,456	41.8	53,533	58.2	0.6(0.3)	2.5(1.4)	17.4(10.1)
2016	1,740.8	386.4	531,859	93,593	39,446	42.1	54,147	57.9	0.5(0.3)	2.4(1.4)	17.6(10.2)
2017	1,835.7	400.5	574,123	94,584	39,450	41.7	55,134	58.3	0.5(0.3)	2.3(1.4)	16.5(9.6)
2018	1,898.2	428.8	641,898	96,742	39,958	41.3	56,784	58.7	0.5(0.3)	2.2(1.3)	15.1(8.8)
2019	1,924.5	469.6	706,490	102,576	39,986	39.0	62,590	61.0	0.5(0.3)	2.2(1.3)	14.5(8.9)
2020	1,933.2	512.3	726,344	110,139	40,018	36.3	70,121	63.7	0.6(0.4)	2.1(1.4)	15.2(9.7)
2021	2,057.4	558.0	712,076	113,270	39,946	35.3	73,324	64.7	0.6(0.4)	2.0(1.3)	15.9(10.3)

자료: 기획재정부(각 연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GDP(명목)는 KOSIS(한국은행, 국민계정), 국가장학금은 2010, 2011년의 경우 대학생 장학금 지원 예산임.

중앙부처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2019~2021년)

출처:
고등교육재정지원정보시스템

32개 중앙부처(청)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총규모

2019년 13조 7,520억원, 2020년 14조 5,846억원, 2021년 15조 5,967억원
연평균 약 6.0~6.9% 증가추세



재정 지원 정부부처별

교육부(69.9%)>과학기술정보통신부(17.1%)>고용노동부(3.3%)>산업통상자원부(2.1%)>중소벤처기업부(1.1%)

교육부 : 2019년 9조 5,152억원, 2020년 10조 2,284억원, 2021년 10조 8,988억원으로 증가



지원단위별

대학 7조 4,4094억원(47.5%)
집단 2조 460억원(13.1%)
개인 6조 1,413억원(39.4%)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학제별

대학 13조 5,253억원(86.7%)
전문대 2조 434억원(13.1%)
대학원대학 279억원(0.2%)

대학에 대한 지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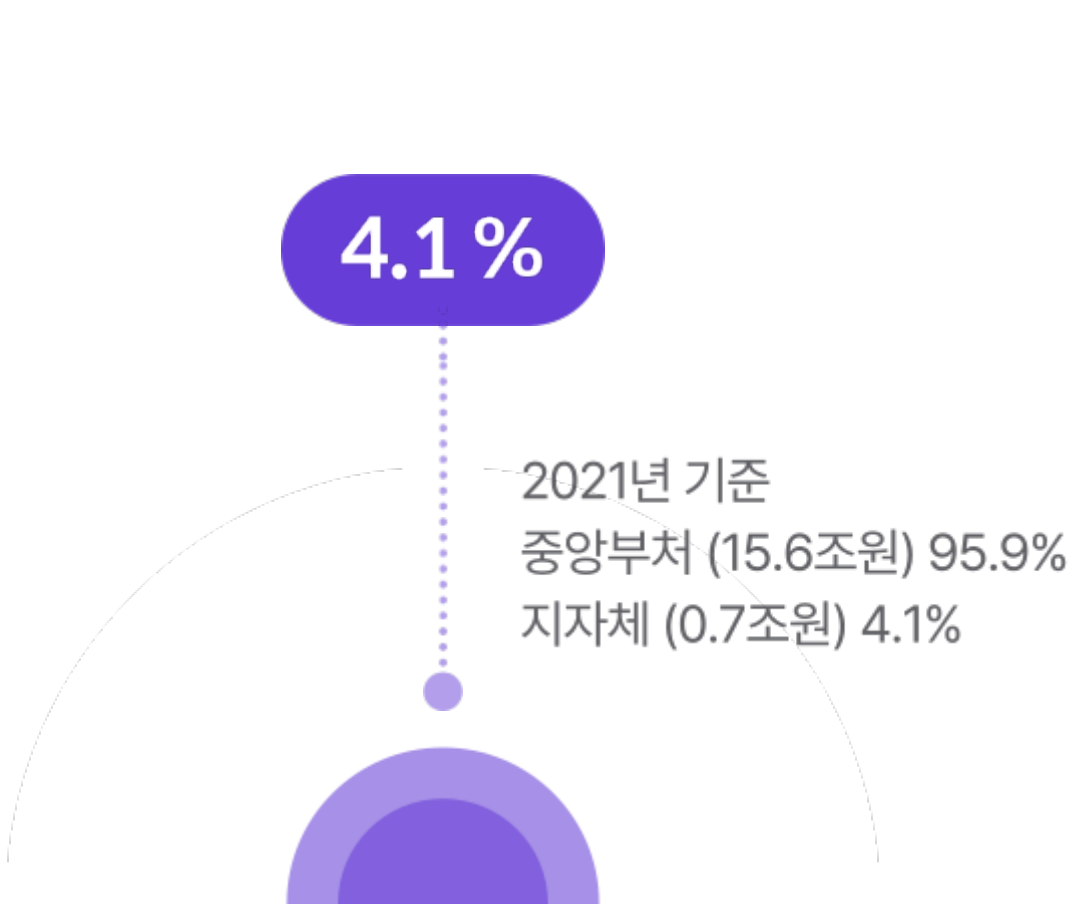
대학특성별

국공립대학 7조 4,836억원(55.3%), 사립대학 6조 418억원(44.7%)
사유: 국공립대학 경상운영비 지원

전체적으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대규모 대학의 지원 비중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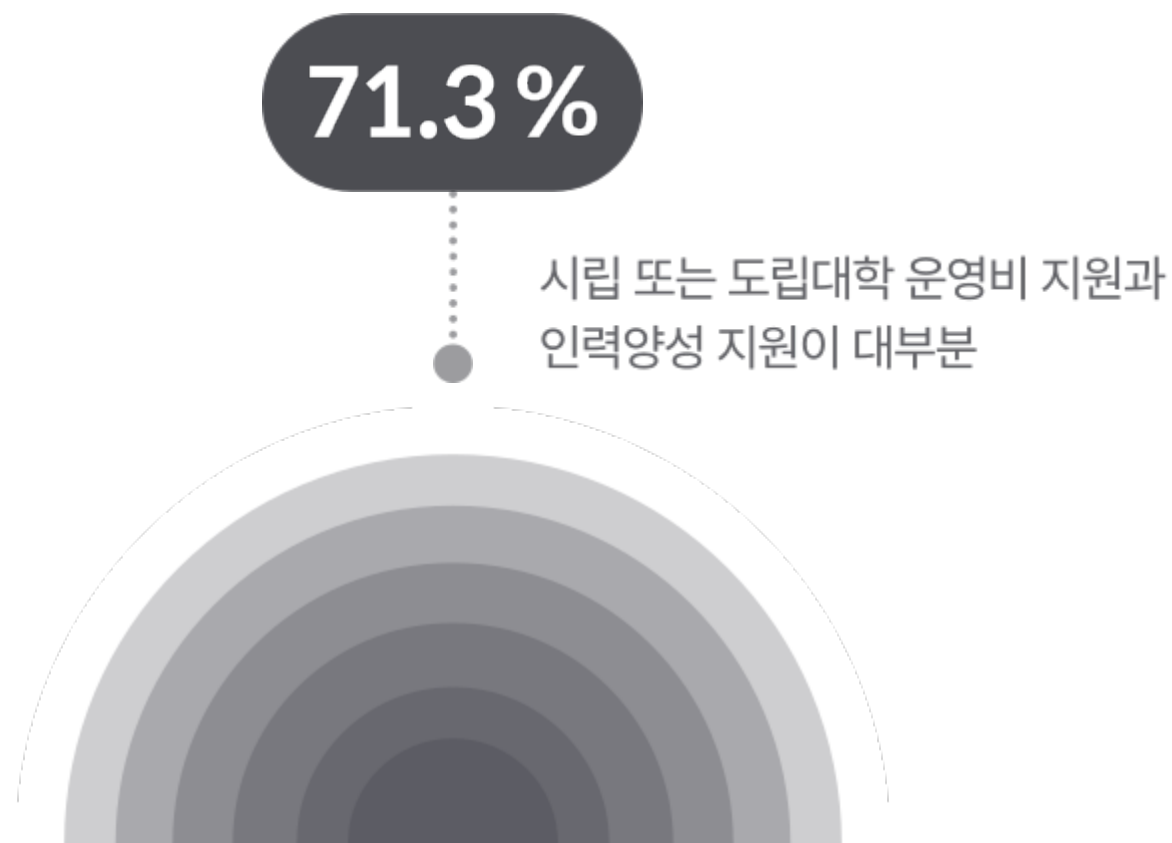
4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2019~2021년)

▶ 2019년 4,7721억원, 2020년 6,884억원, 2021년 6,596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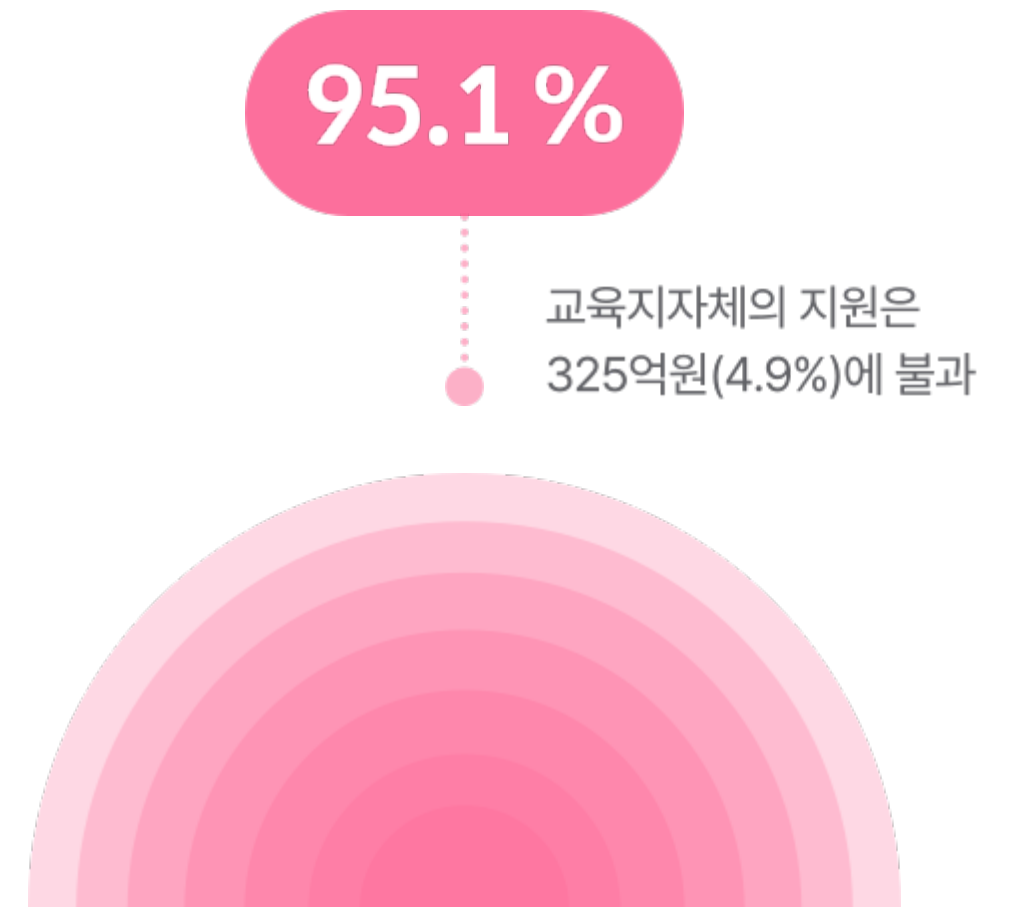
**중앙부처에 비하면 매우
영세한 수준**

2021년 기준 중앙부처의 지원규모인
15조 5,967억원에 비하면 매우 영세한 규모



일반지원사업

일반지원사업 4,703억원(71.3%)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1,749억원(26.5%)
학자금 지원사업 145억원(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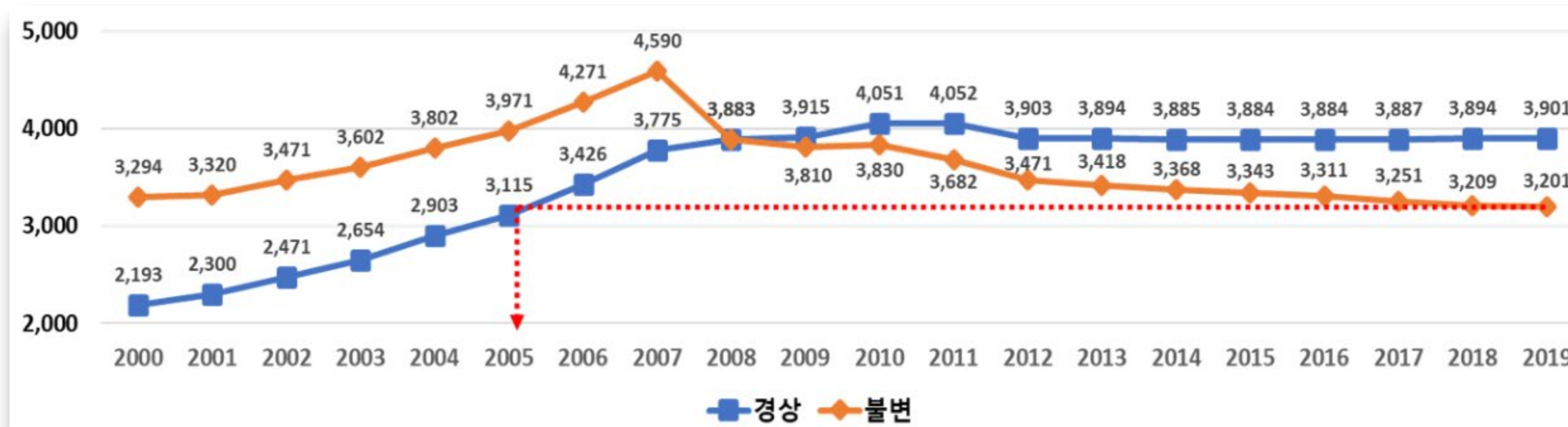
일반지방자치단체 지원

일반지자체 6,272억원(95.1%)/ 교육지자체 325억원(4.9%)
일반지자체 : 서울(960), 전남(663), 경기(591), 경남(581), 충남(556),
인천(508), 강원(421), 경북(347), 충북(328) 순
교육지자체 : 서울(87), 부산(31), 대구(27), 경남(25), 충북(22), 충남(20) 순

5 수익자부담원칙과 대학등록금 동결/인하 압력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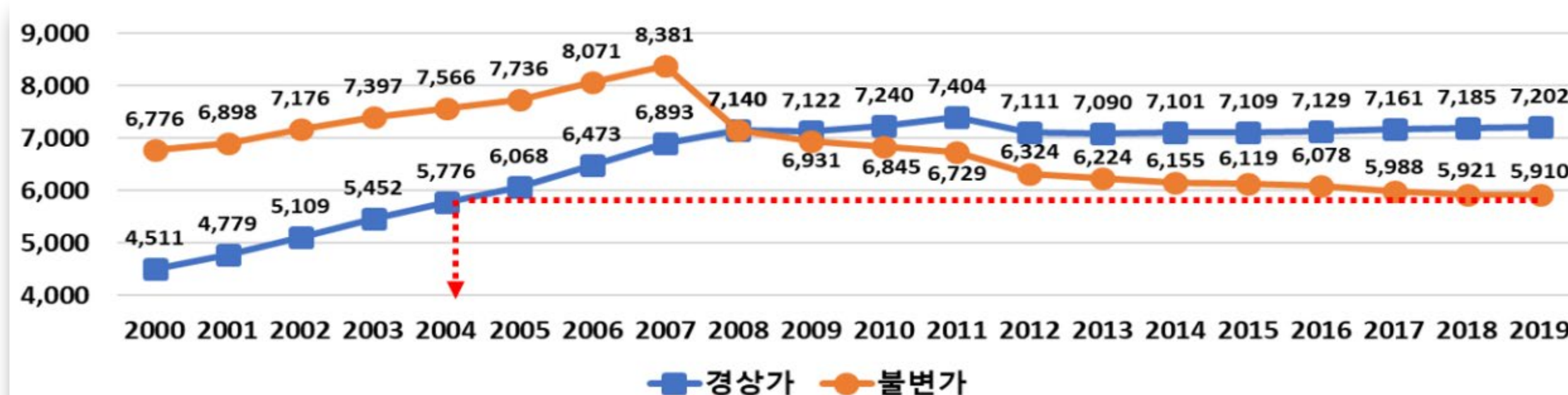
▶ 2019년 등록금 수준은 2004, 2005년 수준에 해당

출처 : 서영인 외(2020)



국·공립대학교

- 명목등록금은 2011년 대비 2019년 3.7% 인하
- 실질등록금(불변가, 2008=100)은 2008년 대비 17.4%, 2022년 대비 12.8% 인하
- 2019년 등록금은 2005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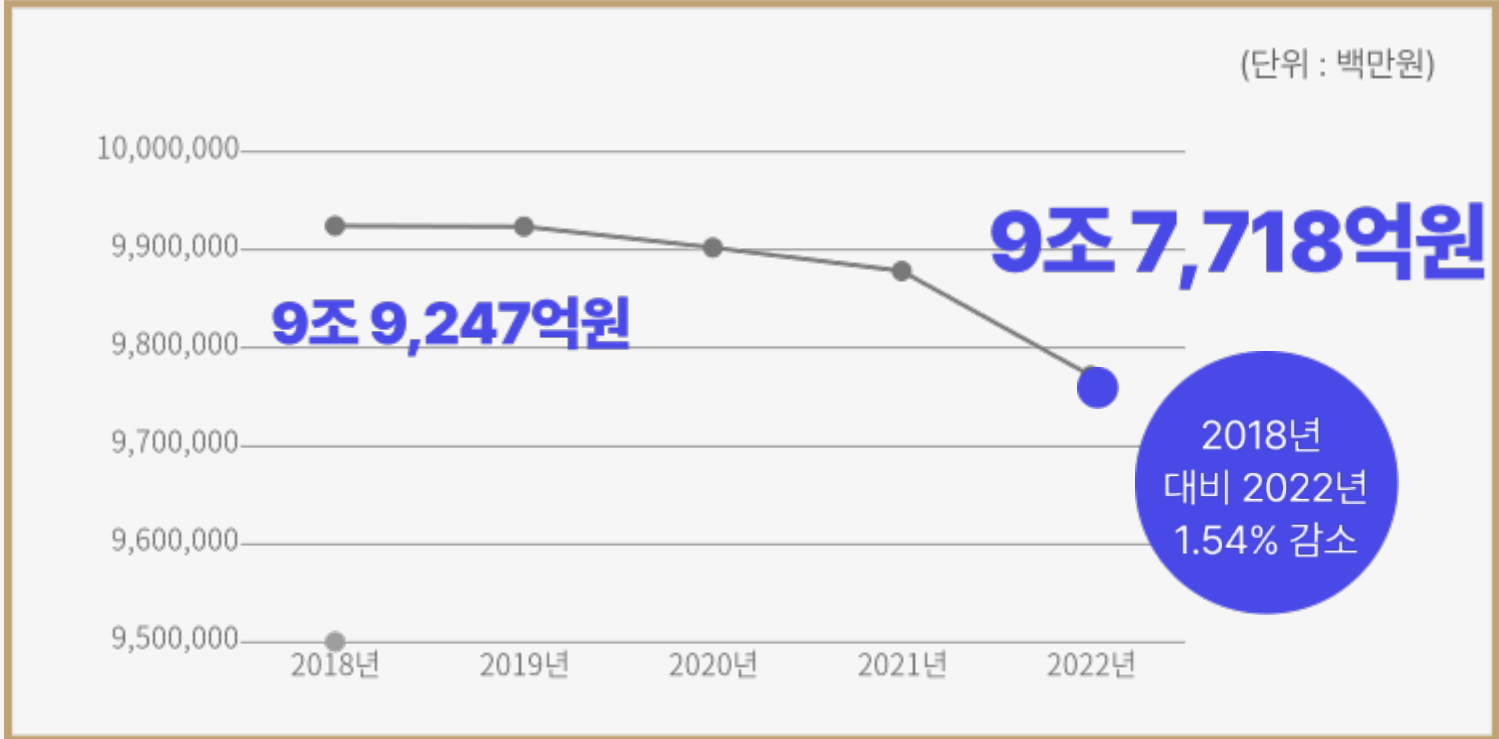


사립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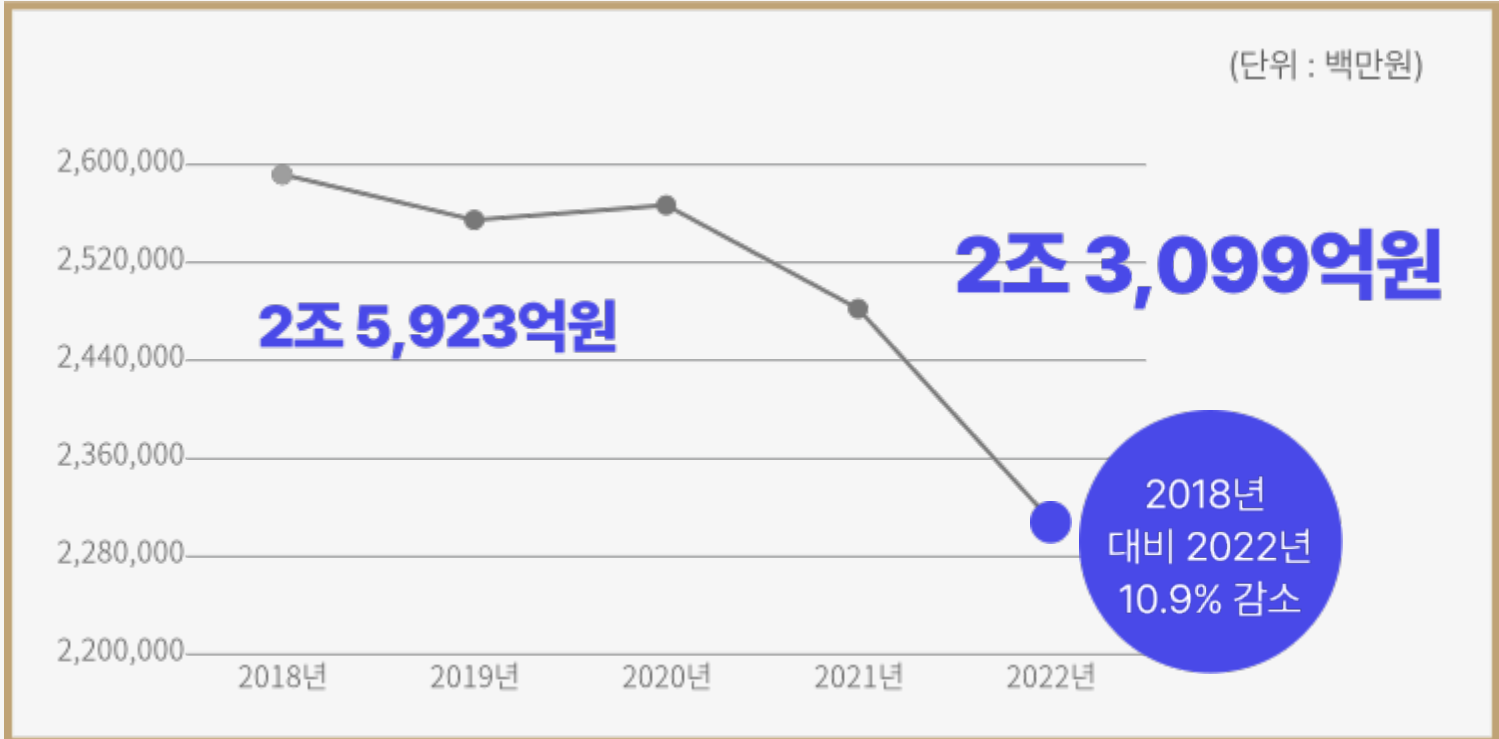
- 명목등록금은 2011년 대비 2.7% 인하
- 실질등록금은 2008년 대비 17.2%, 2011년 대비 12.2% 인하
- 2019년 등록금은 2004년 수준의 등록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

6 사립대학교 등록금 수입 및 등록금의존율 추이(2018~2022년)

사립 일반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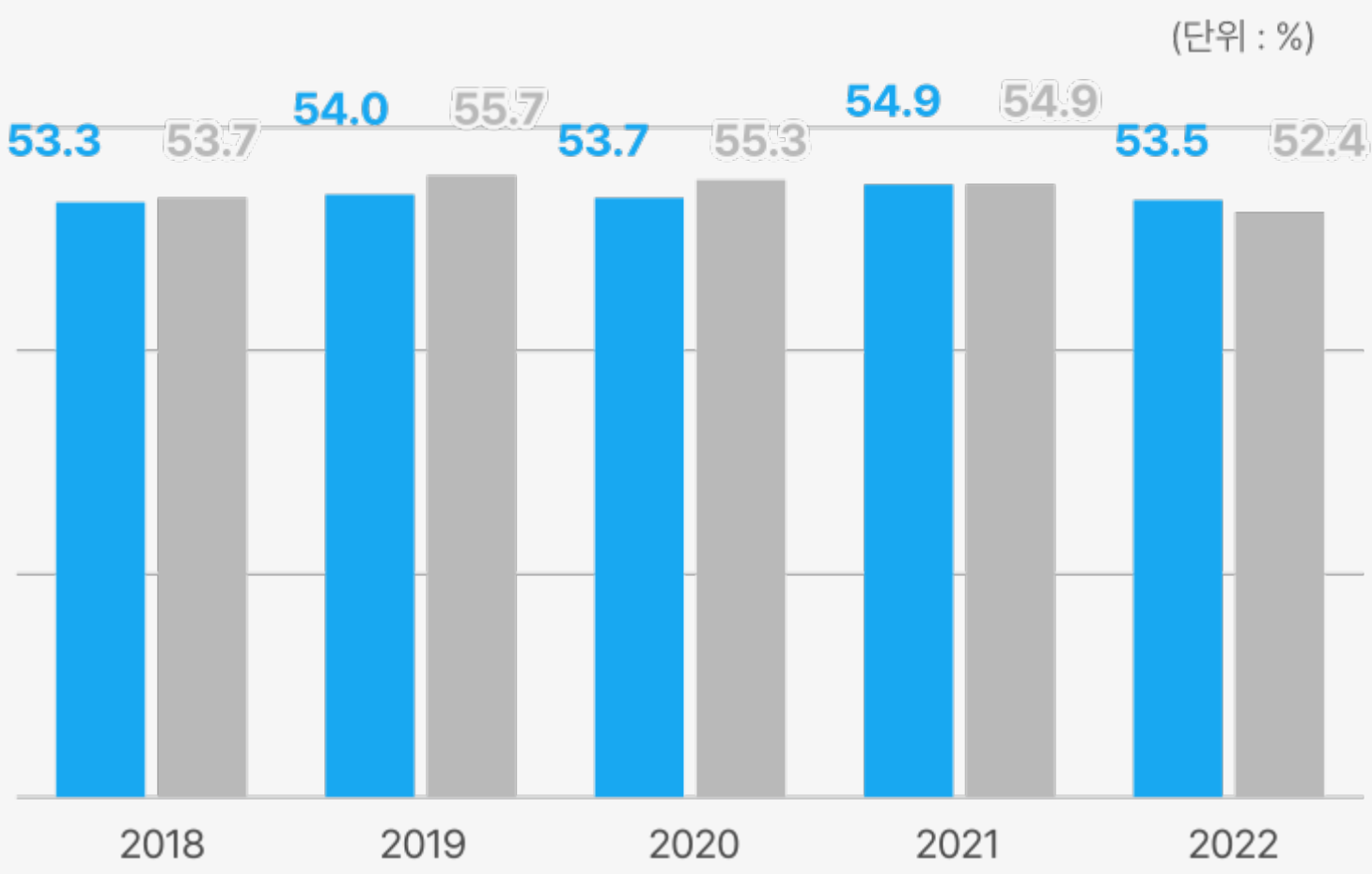
사립 전문대학



사립대학 등록금의존율

2022년 기준

사립 일반대학교의 등록금 의존율은 53.6%, 사립 전문대학은 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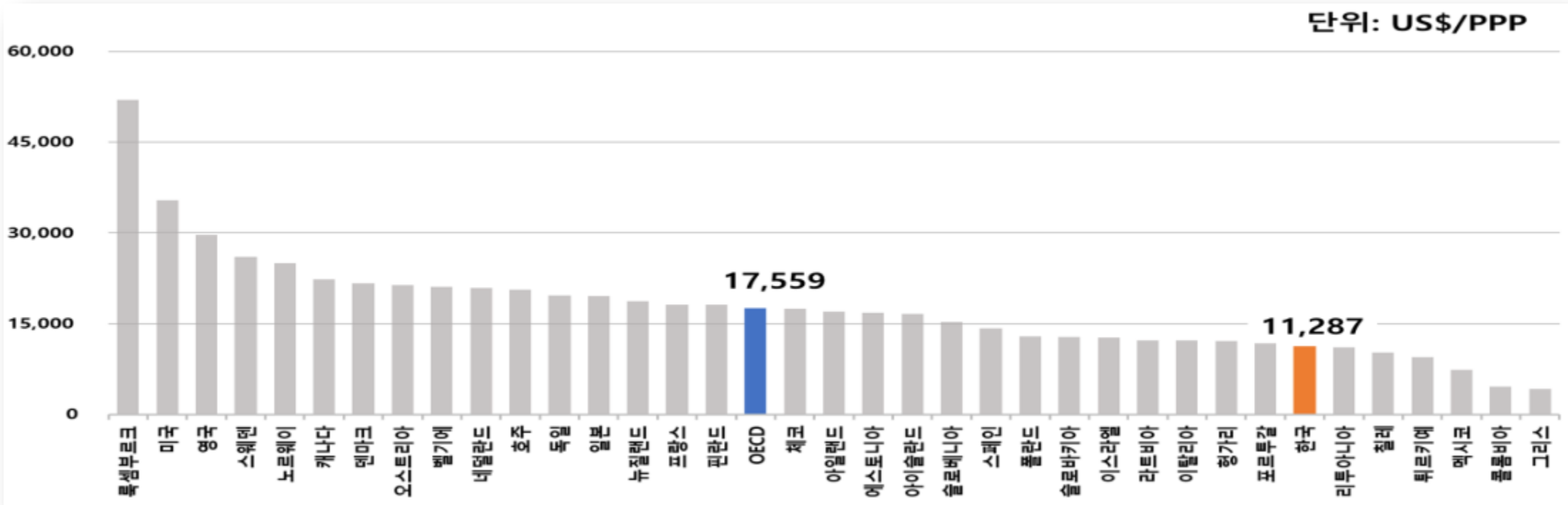


* 등록금 의존율 = (등록금수입/자금수입총액)*100

학생 1인당 교육비 규모와 학교급별 투자 경향(2019회계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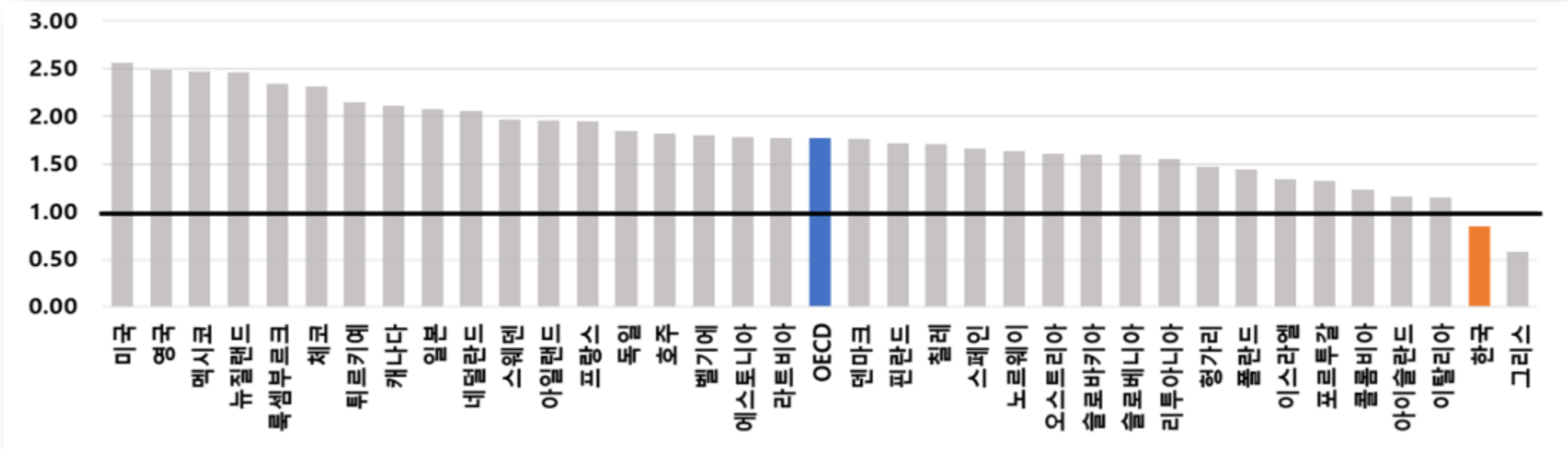
고등교육단계의 학생 1인당 교육비 11,287(USD/PPP)

OECD 평균의 64.3%, G7 평균의 50.4% 수준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교육비 < 초, 중등교육 학생 1인당 교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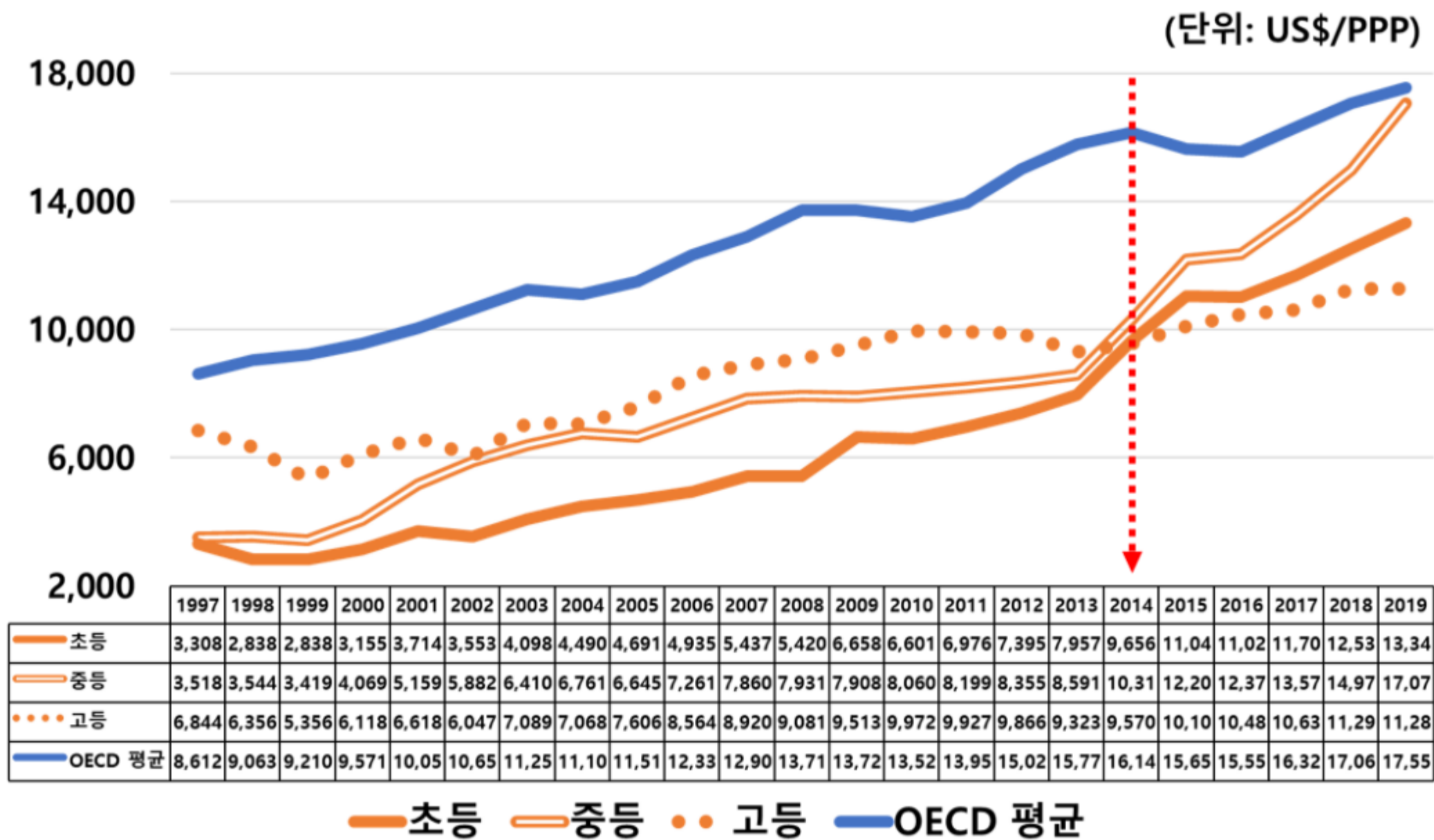
한국(초등의 0.85, 중등의 0.66)은 그리스(초등의 0.58, 중등의 0.62)를 제외하고 OECD 국가 최하위



학생 1인당 교육비 추이(1997-2019회계연도)

줄곧 OECD 평균 보다 낮은 수준

2010년에는 73.7% 수준까지
추적, 초등교육보다 못한 투자
상태가 된 2014년에는 격차가
59% 수준으로 벌어졌고 최근
까지 65% 전후 수준을 유지



고등교육단계 재정투자 수준 추이 종합 비교

- ▶ 경제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 대비 1인당 교육비 수준은 10년 전과 동일
- ▶ 1인당 GDP 대비 1인당 교육비의 상대적 수준은 하락, 정부재원의 비율은 다소 개선
- ▶ 10년 간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동결 · 인하되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늘어남에 따라 결과적으로 우리의 고등교육재정 투자 수준은 10년 전의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있음

구분	2008			2018			2019		
	한국	OECD	OECD 대비	한국	OECD	OECD 대비	한국	OECD	OECD 대비
1인당 GDP	26,877	33,910	79.3	42,487	45,546	93.3	43,045	47,127	91.3
1인당 교육비	9,081	13,717	66.2	11,290	17,065	66.2	11,287	17,559	64.3
1인당 정부부담 교육비	2,025	11,263	21.4	4,516	11,263	40.1	4,318	12,235	35.3
1인당 GDP 대비 1인당 교육비	34.0	41.0	82.9	26.6	37.5	70.9	26.2	37.3	70.2
1인당 GDP 대비 1인당 정부부담 교육비	7.6	27.9	27.2	10.6	24.7	43.0	10.0	26.0	38.5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0.6	1.0	60.0	0.6	0.9	66.7	0.6	0.9	66.7
정부재원 비율	22.3	68.9	32.4	39.7	66.2	60.0	38.3	66.0	58.0

10 OECD 국가의 고등교육비 공공-민간 부담 유형



단위:
%, US PPP \$

	국가명	공공비중	GDP 대비 정부지출	GDP 대비 고등교육비	1인당 고등교육비 (A)	1인당 GDP (B)	A/B
정부 책임	노르웨이	92.3	59.1	1.96	25428	57577	44.2
	핀란드	91.0	53.4	1.53	18170	49727	36.5
	룩셈부르크	90.1	41.9	0.42	47694	116481	40.9
	오스트리아	89.5	48.7	1.73	20452	57069	35.8
	아이슬란드	88.3	44.0	1.18	15675	58140	27.0
	슬로베니아	84.4	43.5	1.03	14060	38952	36.1
	스웨덴	83.9	49.8	1.56	26147	53553	48.8
	벨기에	83.6	52.2	1.52	20471	52668	38.9
	독일	83.4	44.5	1.24	19324	54955	35.2
	덴마크	82.0	50.5	1.72	19684	57459	34.3
	콜롬비아	79.7	45.2	0.94	2863	15227	18.8
	폴란드	79.0	41.5	1.20	11192	31614	35.4
	그리스	76.9	48.4	0.86	3503	29681	11.8
	프랑스	76.5	55.7	1.47	17420	46456	37.5
	체코	76.2	40.6	1.19	16148	41148	39.2
	터키	72.0	34.7	1.70	10008	28263	35.4
	평균	83.1	47.1	1.33	18015	49311	34.7
혼합	에스토니아	69.4	39.2	1.62	17433	36406	47.9
	슬로바키아	68.2	41.7	0.93	12113	31562	38.4
	아일랜드	67.9	25.6	0.88	17152	85027	20.2
	네덜란드	67.7	42.3	1.68	20898	57900	36.1
	헝가리	67.7	45.9	1.07	13738	31830	43.2
	리투아니아	66.1	33.8	1.08	9905	36346	27.3
	스페인	64.7	41.7	1.26	13800	40780	33.8
	이탈리아	61.9	48.4	0.90	12305	43085	28.6
	포르투갈	59.4	43.2	1.14	11779	34932	33.7
	라트비아	57.6	39.4	1.19	10309	30814	33.5
	멕시코	57.6	27.5	1.43	7907	20519	38.5
	이스라엘	53.4	40.4	1.41	12336	40351	30.6
	뉴질랜드	53.3	39.8	1.71	17923	42143	42.5
	캐나다	52.3	43.0	2.33	24496	48721	50.3
	평균	61.9	39.4	1.33	14435	41458	36.0
시장 지향	칠레	41.3	25.4	2.38	8813	24743	35.6
	한국	39.7	31.1	1.57	11290	42487	26.6
	미국	35.6	38.8	2.52	34036	61408	55.4
	호주	34.8	37.6	1.88	20647	51647	40.0
	일본	32.1	38.9	1.38	19309	41654	46.4
	영국	24.6	42.1	2.03	29911	45957	65.1
	평균	34.7	35.7	1.96	20668	44649	44.8

정부 책임

공공비중
83.1%

노르웨이, 핀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벨기에, 독일, 덴마크, 콜롬비아, 폴란드, 그리스, 프랑스, 체코, 터키 (16개국)

평균 1인당 고등교육비 : 18,015

혼합

공공비중
61.9%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헝가리, 리투아니아,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라트비아, 멕시코, 이스라엘, 뉴질랜드, 캐나다 (14개국)

평균 1인당 고등교육비 : 14,435

시장 지향

공공비중
34.7%

칠레(8,813), 한국(11,290), 미국(34,036), 호주(20,647), 일본(19,309), 영국(29,911) 등 6개국
() 1인당 고등교육비

평균 1인당 고등교육비 : 20,668

열악한 고등교육재정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2



학생 1인당 교육비 (11,287USD/PPP)

- OECD 평균(17,559USD/PPP)의 64.3% 수준
- G7 평균의 50.4%, 30위(36개국)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26.2%)

- OECD 평균의 70.2%, 34위(36개국)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교육비

- 고등교육(84.6) < 초등교육(100.0) < 중등교육 (1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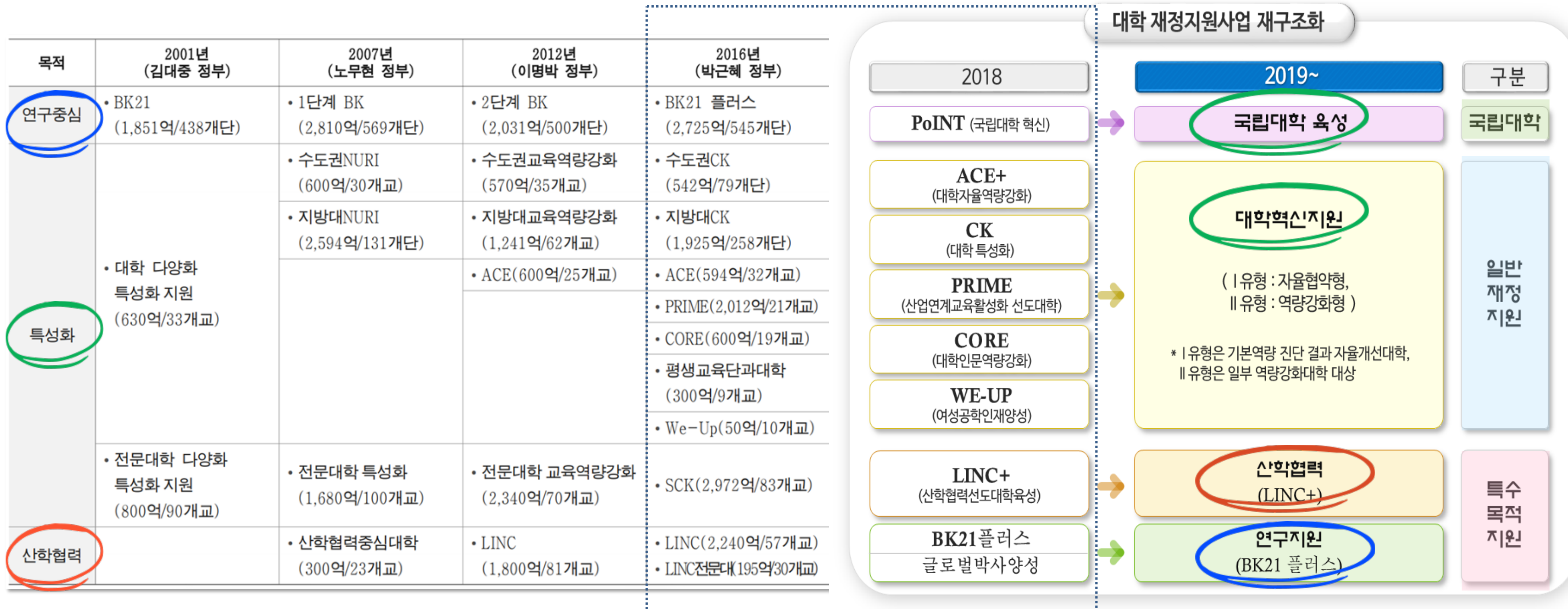
* OECD 국가:
초등교육(100.0) < 중등교육(114.9) < 고등교육 (177.0)



10년 전에도 같은 고민,

- 2008년 = 2018년 66.2% 수준, 2019년 64.3%
- 경제수준 대비 고등교육 투자 규모는 2008년 10%p 이상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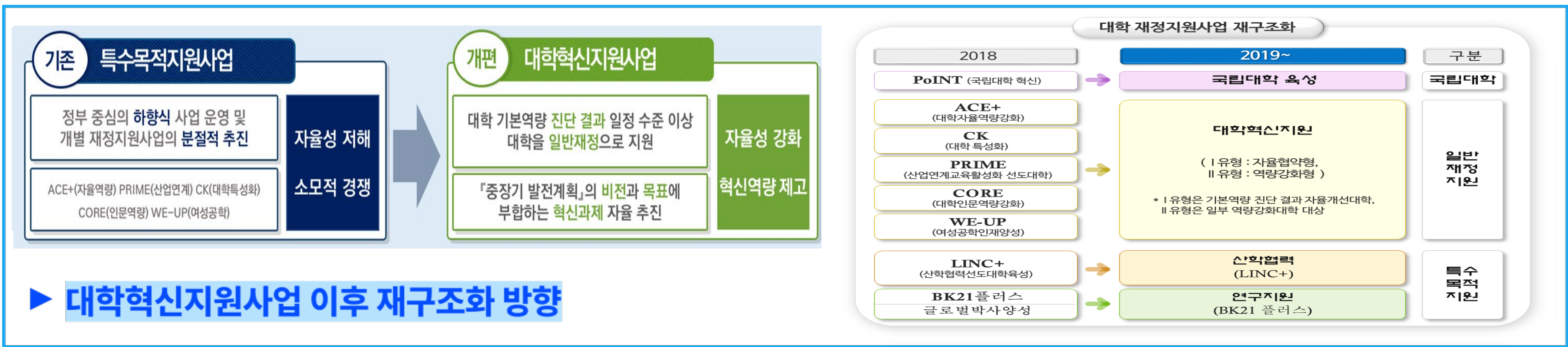
03 대학재정지원사업 변천



2 정부별 대학재정지원정책의 변천과정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구분	사업명	약어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대학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2019~)	
국립대학육성	국립대학혁신사업	POINT																‘POINT’ 2014-2017(3년)								국립대학 육성
특성화	대학특성화 사업	CK																‘CK(수도권/지방대)’ 2014-2018(4년)								대학혁신지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NURI						‘지방대-NURI’ 2004-2008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						‘수도권-NURI’ 2004-2008																		
사회수요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ACE																‘ACE’ 2014-2018(4년)					‘ACE+’ 2017-2020(3년)			대학혁신지원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PRIME																					‘PRIME’ 2016-2018(2년)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CORE																					‘CORE’ 2016-2018(2년)			
	여성공학인재양성	WE-UP																								
산학협력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LINK-1																‘LINC-1’ 2012-2013(1년)		‘LINC-2’ 2014-2016(2년)			‘LINC+’ 2017-2022(5년)			산학협력
연구역량강화	BK21	BK-2	‘BK-1’ 1999-2006(7년)										‘BK-2’ 2006-2013(7년)										‘BK-3’ 2013-2020(7년)			연구지원

3 2019년 이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재구조화 방향



4 2019년 이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키워드

	(2019. 8. 6.)	(2020. 9. 9.)	(2021. 1.26.)	(2021. 5.20.)	(2023.02.01.)
교육부 정책	교육부 대학혁신 지원방안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	2021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비전	대학의 자율 혁신 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공유·협력 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생태계 조성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	지역과 함께 ,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	지역 주도 의 대학지원 패러다임으로 대전환
학사 유연화 (특성화, 적정 규모화)	규제 혁신 (학사제도 유연화, 융합교육) 대학 체제 혁신, 특성화, 자발적 퇴로 평가체제 개선(역량진단)	규제 혁신 (온·오프 융합 / 융합교육과정/대학 간 공유)	선제적 법, 제도 정비 (학술 진흥 관련 / 융합 학과) 적정규모화, 질적 혁신	규제 혁신 (학사 운영 포함) 적정규모화, 정원조정 유연화 구조개혁 및 대학 퇴출 고등교육 재정 확충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규제 특례) 담대한 혁신 (글로벌대학30 사업 운영)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23-'25)
지역 공유, 협력		대학 간 공유·협력 (교육과정, 연구/학술 등) 디지털 역량, 원격수업 내실화, 콘텐츠 공유	원격수업 내실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및 공동학과	대학간개방·공유·협력 (K-MOOC) 공동교육혁신체제 (연합대학 등)	시·도 대학지원 전담조직 기반 중앙부처, 지자체 재정지원 총괄 지역단위 정책 메뉴판 운영 (지역재생-대학-일자리)
신산업 인력 양성	4차산업혁명분야, 신산업인재양성 전문대학 혁신(평생/직업 고등교육 기관) 지역인재 양성 교육과정 해외진출/유학생	디지털, 신산업분야, 산업맞춤형인재양성 재직자 후학습 지원 지역사회 기반 직업교육모델 고등교육 국제화	신기술분야 인재 양성 평생직업교육체제구축 (K-MOOC, 마이스터대학, 직업계고, 고졸 취업 활성화) 미래교육 선도/국제화	첨단분야 인재양성 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지원 (일반대, 전문대/마이스터대/지역연계)	5대 핵심분야 특화인재 양성 지역주도인재양성 기반 조성(RISE 글로벌대학육성) 연구인력 유입·육성 활성화 고숙련 실무 기술인재양성 평생직업교육훈련 내실화
협업 플랫폼	산학협력클러스터(대학캠퍼스 재구조화) 지자체-대학 컨소시엄, 플랫폼	지역혁신플랫폼/지역공유대학	정책 추진 거버넌스 구축 지역 협업체계 구축 (지자체-대학)		지역주도 대학지원 추진체계 구축 (RISE센터 신설)

05 2023년 주요 사업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 배경과 목적

그동안의 논의들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혹은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확보
-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여 고등교육에 투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환하고 교부율을 상향하여 유치원에서 대학교육까지 모든 교육재정을 포괄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2021) : 재정 운영의 경직성 확대 이유로 반대

특별회계 설치 배경

- OECD 국가평균 수준의 고등교육투자(GDP의 1.1% 수준)를 안정적으로 확보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의 부담 완화
-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시적인 법 제정으로 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등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시행 2023. 1. 1.] [법률 제19202호, 2022. 12. 31., 제정]

2022년 12월 법률 제정

-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원 확보 방안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교육세 재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 제안
- 현행 교육세 가운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2022년 기준, 1조 6,664억원)을 제외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교육세 재원규모는 약 3.1조 정도)
- 사업의 목적은 '미래 인재육성에 대한 투자' (①대학 교육·연구역량 등 경쟁력 강화, ②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 ③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④지방대학 육성 등)

비전

국가·지역의 더 큰 도약을 이끄는
대학 중심의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추진 전략

-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 없는 지원' 활성화
- '대학-지자체'가 상호 협력(Co-design) 하는 지역 혁신체계 구축
- 대학-지자체-중앙정부 등을 아우르는 '고등교육 협력체계' 강화

주요 방향

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

- 획일적 평가 중단 및 일반재정지원 대폭 확대
-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체계적 구조개선 지원

지방대학 집중 육성

- 대학-지자체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혁신 건인
- 지방대학의 자율혁신 지원 및 국립대 육성
- 지역 수요 맞춤형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교육·연구 여건 개선

- 국립대 시설 개선 및 기자재 확충
- 석·박사급 고급인재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

미래교원 양성 및 균형적 학문 발전

- 미래교원 양성 등으로 지역 교육 전반의 질 제고
- 인문·사회학, 기초과학 등 기초·소외학문 지원

달라지는 모습

포괄적 지원(약 2배 확대)과
집행 자율성 확대로 대학의
재정운용 여건 개선

지역별 특성에 따라
대학-지자체가 함께
지역혁신 중심 대학 구현

향후 5년 내 국립대
노후시설·기자재 전면 개선
석·박사급 핵심 인재의
양성·배출 활성화

혁신적 교수모델 개발 등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다양한 학문의 인재 육성 및
연구성과 제고

추진 기반

안정적·지속적 자원 확보 기반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9.7조원(+1.7조원)

정부안 대비

1 대학의 자율 혁신 촉진

(23년 정부안) 9,778억원 → (23년 예산) 1조 3,702억원 (+3,924억원)

대학 혁신지원

8,057억원
(+2,299억원)

전문대학 혁신지원

5,620억원
(+1,600억원)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25억원
(+25억원)

2 지방대학 집중 육성

(23년 정부안) 7,523억원 → (23년 예산) 1조 2,837억원 (+5,314억원)

지방 대학·전문대학
활성화 사업

2,500억원
(+2,500억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3,420억원
(+380억원)

국립대학 육성

4,580억원
(+1,308억원)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510억원
(+237억원)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120억원
(+120억원)

4단계 두뇌한국21
- Glocal BK

807억원
(+278억원)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900억원
(+491억원)

※고용부 : 한국폴리텍 대학 운영 지원 2,787억원(+334억원)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 지원 500억원(+154억원)

3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획기적 개선

(23년 정부안) 1조 7,476억원 → (23년 예산) 2조 4,079억원 (+6,603억원)

국립대학
시설확충

1조 19억원
(+4,000억원)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2,680억원
(+1,500억원)

4단계
두뇌한국 21

4,428억원
(+843억원)

서울대 출연

5,775억원 (+180억원)

인천대 출연

1,177억원 (+80억원)

4 초·중·등 미래교원양성 및 학문 균형발전 지원

(23년 정부안) 2,306 → (23년 예산) 3,061억원 (+755억원)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

105억원
(+105억원)

인문사회 기초연구

1,162억원
(+550억원)

이공학술연구기반구축

1,794억원
(+100억원)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총규모 : 9.47조원

-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52조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 회계로 전입되고,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으로 0.2조원이 지원됨
 -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고등·평생교육분야 사업 중 8.02조원* 수준의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됨
- * 교육부 고등교육 분야 사업(학자금 지원분 등 제외), 대학 평생·직업교육 관련 사업 및 서울대·인천대 운영 지원사업 등 7.7조원 및 고용부 0.32조원 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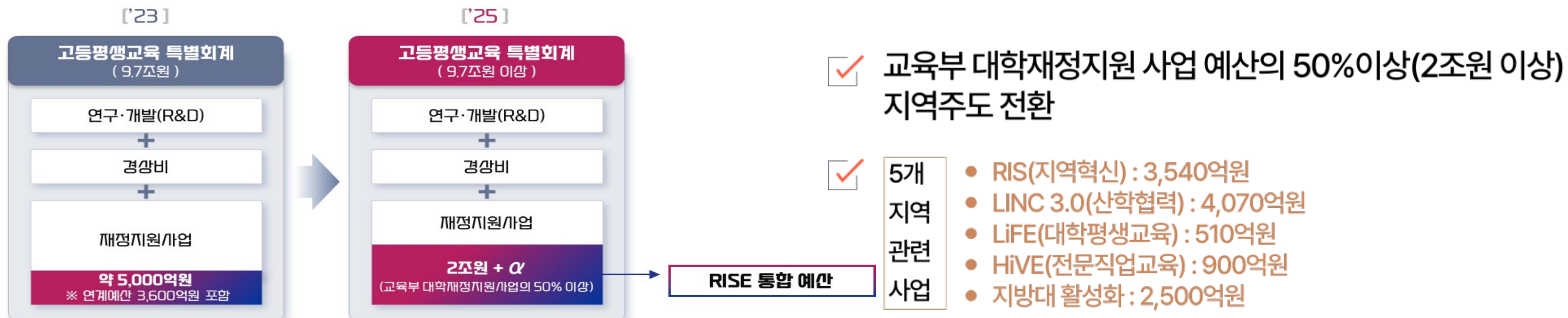
세입 9.47조원	세출 9.47조원 *
1) 교육세 전입금 : 1.52조원	1) 사업 증액 및 신설 : 1.72조원 - 교육분야 1.67조원, 타분야 0.05조원
2) 일반회계 추가 지원 : 0.2조원	2) 기존 사업 이관 : 8.02조원 - 교육분야 7.7조원, 타분야 0.32조원
3) 기존 사업 이관 : 8.02조원 - 교육분야 7.7조원, 타분야 0.32조원	

- * (부처별) 교육부 9.37조원, 고용부 0.37조원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

(단위 : 억원)

사업명	2023년 예산	2022년 예산	목적
대학혁신지원(I유형)	8,057	7,530	- 학령인구 급감, 4차 산업혁명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율적으로 혁신하고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도록 사립대 지원 - 지원대상 : 총 117개교(사립대 114교, 국립대법인 2교, 시립대 1교)
전문대학혁신지원(I유형)	5,620	4,020	- 각 대학이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이행함으로써 전문기술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하도록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추진 - 지원대상 : 전문대학 104개교
(신규)구조개선 지원	25	-	-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의 재정난으로 한계사학의 문제가 현실화됨에 따라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을 통해 구조 개선이 필요한 대학을 파악하고 컨설팅 등을 지원
(신규)지방대 활성화 사업 (대학혁신지원 III유형) : 일반재정지원	1,900	-	- 지방대학별 비교우위 강점 분야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의 허브로 재도약 지원 - 지원대상 :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지방사립대(66교)와 대상 동일
(신규)지방대 활성화 사업 (전문대학 혁신지원 II유형) : 일반재정지원	699	-	- 비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공생하는 지역 거점 인프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비수도권 소재 일반재정지원 전문대학 69개교
(신규)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	105	-	- 교원양성기관의 자율적인 혁신 기반 조성 및 예비교원 역량 제고 지원 (대학원 수준의 양성과정 개편 및 고도화) - 2개 기관 50억씩 지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	3,420	2,440	-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지방대학의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을 추진 - 단일형 300억원 기준 2개 플랫폼 신규 지원
(신규)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	120	-	-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인재 육성-지역기업 취창업-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 지원 -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대학을 허브로 교육청, 산업계 등이 참여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혁신 도모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900	405	- 전문대학-기초자치단체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 특화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 인재의 지역 정주를 지원 - 지역 신중장년 및 성인 학습자 대상 재교육, 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전환교육을 운영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시대 전문대학 기능 전환
국립대학 혁신지원	4,580	3,064	-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자 지역인재 양성의 중심 역할을 하는 국립대학의 글로벌 경쟁력과 공공성 제고 * 2022년의 국립대학육성사업(1,500억원) + 대학혁신지원사업(1,564억원)
대학평생교육체제 지원	510	241.3	- 대학이 지역내 정주하고 있는 성인학습자의 재교육 및 이전직 교육 등에 적합한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도록 지원
4단계 두뇌한국21	5,261	4,055	- 4차 산업혁명 및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



지원방식 전환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 사업 중 지역주도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은 지자체에서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협의

정책 메뉴판

대학이 지역혁신과 연계한 대학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 가능한 중앙부처의 사업을 분석하여 정책메뉴판으로 제공

대학에서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5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조정계획

2023년	2024년	2025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3,520억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1.1조원 이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조원 이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3420억원)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120억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운영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통합 예산)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3.0)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3.0) (3025억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LINC 3.0)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전문대학 지역기반 협업형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LINC 3.0) (1045억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3유형,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전문대학 지역기반 협업형 (900억원)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지원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51억원)		
대학혁신지원		
-3유형,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1900억원)		
전문대학 혁신지원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지원(600억원)		

6 글로컬대학 30 사업



개요

담대한 비전과 혁신적 변화 의지·역량을 가진 대학
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여 전략적 지원 추진
(‘23~’24년 대학별 100억원 규모)

※ (지원규모) 5년간 1,000억원 지원(1~2년차 100억원, 3~4년차 200억원, 5년차 300억원)(대학 수) ‘27년까지 30개교 지정(‘23년 10개, ‘24~’27년 매년 5개)



지원방식

① 별도 내역사업을 통한 ‘24년 예산 지원
② 글로컬대학 지정·인증에 따른 사업별 인센티브 부여
(차등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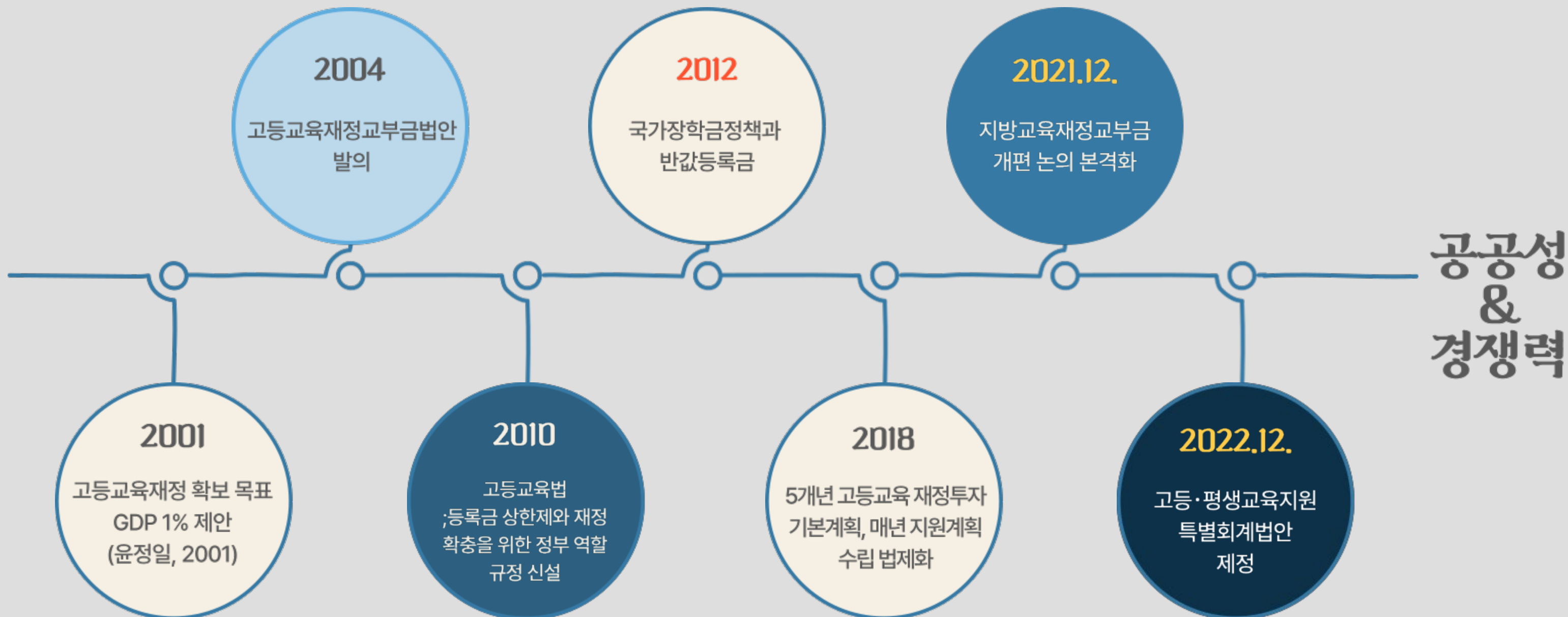
① 지방대학성화사업(2,500억원)의 증액 또는 ② 대학혁신지원(1유형)의 차등
여부 검토

- | | |
|--|--|
| 1 (그르노블-알프스 연합 대학)
국립연구소와 국립대학, 일반대학 간의 연합 형성 | → 우수대학인증사업 선정, ARWU 99위 기록 |
| 2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
텔아비브 법과대학+자연과학연구소+유대인 연구소 통합 | → 학제 간의 벽을 허물고 융합연구대학의 선두주자 (르네상스 연구정신) |
| 3 (독일 미텔슈탄트 대학)
독일 강소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위한 훈련과 체계적 교육 | → 현장전문가의 교수 임용
지역 기업이나 사회를 위한 연구프로젝트에 학생의 적극적참여 |
| 4 (미국 올린공과 대학)
모든 수업을 프로젝트 수업 및 실험 위주 현장 중심 교육 | → 현장중심 연구, 실제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직접 발주 받아 지식을 기반으로 직접 해결하는 SCOPE 실시 |
| 5 (일본 리스메이칸 아사히 태평양 대학)
50개 이상의 나라, 50%이상의 국제학생과 외국인 교원 | → 인구 12만명의 일본 소도시 벳푸의 국제도시화 |
| 6 (미국 애리조나 대학)
ASU와 기업 간의 협약을 통한 지속적 학업환경 조성 | → 스타벅스와 함께 학위 프로그램 운영(장학금 지급)
우버와 협약을 통해 지역 기업의 재직자가 일과 학업 병행 |
| 7 (독일 미텔슈탄트 대학)
외국인 정주인력 양성을 목표로 프로그램 운영 | → 해외 학생들의 실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의 직업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독일어교육, 문화 적응훈련 등 제공 |
| 8 (미국 새던 뉴햄프셔 대학)
근로자학생, 성인학습자 등 대상 교육 활성화 | → 대학의 낮은 평판과 교육재정 어려움을 평생교육과 온라인교육으로 극복하여 근로자학생, 성인학습자 입학 증가 |
| 9 (이스라엘 테크니온공과 대학)
창업의 전단계를 대학에서 지원하여 육성 | → 모든 학생에게 전 교육과정에서 창업과 기업가정신 교육
연구개발재단, T-3를 통해 창업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 |
| 10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
창업의 전 단계를 대학에서 지원하는 체계 | → 기술이전회사(라뮈)와 자회사(타워벤처)를 통해 특허 등록, 상용화 지원하여 대학의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투자 유치 추진 |
| 11 (핀란드 알토 대학)
3개의 국립대를 통합하여 스타트업 창업 기반 조성 | → 전공에 상관없이 자유로운 수업 수강
수업은 실습과 팀프로젝트 위주로 진행 |
| 12 (미국 뱀슨 칼리지)
기업가정신의 학부 전공을 운영 | → 세계 최초 기업가정신 학부전공(CEO 교수진)을 독립 운영 및 창업교육에 중점을 통해 졸업생의 높은 창업 비율 |

05 쟁점과 향후 개선방향

고등교육
보편화 진입

2000년 고등교육기관취학률
50% 초과



1) 특별회계 세입의 안정성과 타당성 문제

1

세입 구조

- 특별회계법 제4조(세입),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7조(차입금)

①특별회계법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③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음.

2

쟁점

- 신규세입재원의 안정성과 추가재원의 적정성 문제

- 교육교부금에서 최소한의 지원 약정 금액 규정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규모”의 경우 유·보통합 등으로 유아교육재정 소요규모가 확대될 경우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고등·평생교육분야 사업 중 8.02조원 수준의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하여 편성하고 있음.

2) 특별회계 자원 지출사업의 타당성 문제

1

특별회계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법 제5조)

- ①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 ②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 ③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 ④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 ⑤ 제7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⑥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2

쟁점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고등·평생교육분야 사업 중 8.02조원 수준의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한가?

한 걸음 더 나아가 타부처 사업을 특별회계에 담는 것이 타당한가?

안정적 고등교육재정 확보제도로써 특별회계의 법적 기반 재정비와 사용목적 명료화

1

'확보' 조항 추가

- 고등교육재정 지원 목적, 5년 단위 재정 기본계획 및 매년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재원 확보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조항에 담겨 있지 않음.
- 「고등교육법」제7조의2 제2항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재정 확보' 내용 규정 추가
- 제2항 3호와 6호에 '확보' 관련 내용 추가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제1조(목적)에 「고등교육법」제7조의2 관련 조항 추가
- 특별회계의 목적이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과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시

2

목적 명료화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지방대학기반지역활성화'로 목적을 명료화하여 운영하는 방안: **현행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구조를 유지하되, 특별회계로서 설치의 논리 및 목적을 명료화함으로써 운영의 타당성을 유지**
- **중·장기적으로 (가칭)미래교육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 **중·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국세교육세분전입금 전체를 (가칭)미래교육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제안**

남수경

beableto@kangwon.ac.kr

THANK YOU.



감사원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